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70년대 후반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신 현명한 령도

오 성 철

1970년대 중엽에 이르러 주체의 군건설 위업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는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위업 실현의 주력군으로 만들자면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7권 76페이지)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고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전군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의 령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선이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 당, 군대는 뿔레야 뿔 수 없는 일심동체이다. 인민군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이며 인민군대에 대한 수령의 령도는 당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군대의 존재와 그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인민군대는 오직 당의 령도밑에서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위업계승 문제가 일정에 오른 우리 혁명발전과 전군 **김일성주의화**가 군건설의 전략적과업으로 전면에 나선 군건설의 성숙된 요구

에 맞게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신것이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전체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속에서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여야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인민군 지휘성원들속에서 당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당성을 단련하는것은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1970년대 후반기 당의 기초축성사업과 더불어 인민군대 지휘성원들의 당성단련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었으나 이 문제가 다 해결된것은 아니였다. 간부대렬에서 끊임없는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일부 준비되지 못한 지휘관들의 당생활에서는 일련의 부족점이 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포착하시고 인민군 지휘

성원들의 당성단련방도를 깊이 모색하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당성단련에서 결정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주체67(1978)년부터 인민군 지휘성원들을 위한 새로운 당강습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발기하신 새로운 당강습은 지난 시기 인민군대 당정치사업체제안에서 진행되어오던 여러가지 형식의 강습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사상단련형식이였다.

새로운 당강습체제에 의하여 수많은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당군건설의 핵심으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전군에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인민군당위원회 제6기 제20차전원회의의 확대회의를 계기로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전군에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군에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기 위하여 인민군당위원회 제6기 제20차전원회의의 확대회의를 소집할것을 결심하시고 전원회의의 확대회의준비를 잘 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고 전원회의의 확대회의의 방향으로부터 참가대상과 회의일정 그리고 회의운영에서 나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총정치국에서 회의준비사업을 면밀히 짜고 들도록 하시였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주체68(1979)년 12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인민군당위원회 제6기 제20차전원회의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인민군대 지휘성원들의 당성을 단련시키며 인민군대안에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회의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이 인민군당위원회 전

원회의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침투사업과 그 관철을 위한 접수토의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접수토의사업에서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당위원회 제6기 제20차전원회의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전군적인 토의사업이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됨으로써 전군에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당성단련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인민군 군인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군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것을 당성단련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주체65(1976)년 1월 1일 인민군대에 새로운 구호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 목숨바쳐 싸우자!》를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군인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충실성교양이라고 하여 덕성교양일면에 치우치지 말고 원리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충실성교양을 원리화, 통속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군인들속에서 항일혁명선렬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전사들의 충실성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을 심화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안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끝없는 충실성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는 한편 주체 68(1979)년 12월에는 인민군대에서 오중 흡동지를 따라배우는 운동의 불길을 지펴 주시여 이 운동이 군인들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심어주고 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주체 65(1976)년 10월 2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하신 담화에서 인민군대에서 리수복영웅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리수복영웅이 지녔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열렬한 애국심,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주의를 적극 본받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밖에도 군인들속에서 혁명영화와 혁명소설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을 통한 충실성교양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인민군대안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군인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장군님의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열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전군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워나가도록 하신것이다.

전군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전군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인민군대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수 있으며 당의 의도에 맞게 군대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갈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군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하여 우선 인민군대의 모든 간부들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 64(1975)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인민군대안의 모든 간부들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당중앙이 앞으로 갓 하면 전군이 하나와 같이 앞으로 나가고 당중앙이 담벽을 밀고 나가라고 하면 담벽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주체 66(1977)년 8월말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에게 인민군대안에서 개별적간부들에게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아첨하는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며 간부들과 당원들, 군인들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듭되는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인민군대안의 모든 간부들은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굳은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군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하여 또한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을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해나가는 강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 64(1975)년 1월 1일담화에서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빠짐없이 당중앙에 보고하고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규률이 전군을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시였으며 주체 66(1977)년 8월 인

민군 총정치국의 한 책임일군을 만나시여 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의 기본임무는 전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 인민군대를 강유력한 당의 군대로 만드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안의 당정치사업에서 주선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이해 8월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당중앙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할수 있는 새로운 체계와 질서를 세워주시고 총정치국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사업을 몸소 조직해주시여 전반적인 당정치사업체계를 정돈하고 모든 사업을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총정치국과 함께 인민군대안의 각급 당위원회들과 정

치기관들도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당의 기초축성사업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안의 각급 당위원회들과 정치기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위력한 정치조직으로 강화되게 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정치사상적대를 굳건히 세우고 당의 위업실현의 기둥, 주력군으로 비상히 강화발전되게 되였다.